

애완동물용 영양제 코디 M

반려주를 위한 자료



이번에 저희 애완동물용 영양제 · 코디의 자료를 청구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 한 동물병원과의 협력 하에 탄생한 코디는 현재 일본 내
약 250곳이 넘는 동물병원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
실적)

선진적인 학회 및 세미나에서는 코디를 병용한 치료사례가 여러
수의사에 의해 발표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모노리스 동물의료사업부

제품 홈페이지 <https://korea.cordy.monolith-japan.com>



코디 반려주용 자료

코디시리즈 소개

코디시리즈는 일본에서 자생하는 동충하초를 원료로 제조한 영양제입니다. 천연의 동충하초는 매우 희소하며 채집할 수 있는 양은 소량입니다. 게다가 400 종 이상의 동충하초 중에 저희가 유용성을 인정한 좋은 겨우 몇 종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매우 귀중한 원료를 특수기술로 배양·증식시켜서 적절하게 혼합하였습니다.

몇 종류의 동충하초를 혼합함으로써 각각이 가진 효력이 더욱 높아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노리스에서만 만들 수 있는 애완동물용 영양제·코디
소중한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품용기 표기(발췌)

【제품명】 코디M 【원재료명】 동충하초배양물, 현미

【내용량】 30g 【원산국】 일본

【판매자】 주식회사 모노리스 사이타마현 니자시 토후쿠 1-3-5

【보존방법】 직사광선을 피해 습도가 낮은 서늘한 곳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디M 성분분석표 (100g 당)

열량	408kcal/100g	※1	-
단백질	8.0g/100g	※2	연소법
지방질	3.4g/100g	-	산분해법
탄수화물	86.4g/100g	※3	-
나트륨	5mg/100g	-	원자흡광광도법
식염상당량	0.0g/100g	-	나트륨 환산치
수분	1.0g/100g	-	상압가열건조법
회분	1.2g/100g	-	직접회화법
칼슘	12mg/100g	-	원자흡광광도법
인	303mg/100g	-	흡광광도법
칼륨	161mg/100g	-	원자흡광광도법
마그네슘	122mg/100g	-	원자흡광광도법
아연	2.2mg/100g	-	원자흡광광도법
철	0.8mg/100g	-	원자흡광광도법
구리	0.17mg/100g	-	원자흡광광도법
망간	1.62mg/100g	-	원자흡광광도법

※1 영양표시기준 (2003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 176호)에 의한
에너지 환산계수 : 단백질 4,
지방질 9, 탄수화물 4

※2 질소·단백질 환산계수 : 6.25

※3 영양표시기준(2003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 176호)에 의한
계산식 : 100-
(수분+단백질+지방질+회분)

제품 문의는 (주)에스에스오티코리아

02-3454-0704



하루 투여기준량／코디 선택방법

발암 시, 암 치료 시・・・체중 1kg 당 0.4g

체중	하루량	참고
2. 5kg	1g	30 일분
5kg	2g	15 일분
10kg	4g	7. 5 일분

- 우선 1개월 정도 먹여보시기 바랍니다. 진행이 멈추었는지, 상황이 개선되었는지를 혈액검사치 및 브레인, 활동성 등을 통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황이 개선된다면 서서히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판매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 예방 (고위험) ・・・체중 1kg 당 0.1g

체중	하루량	참고
2. 5kg	0. 25g	120 일분
5kg	0. 5g	60 일분
10kg	1g	30 일분

- 고위험 : 과거 암 병력, 10살 이상, 바이러스 보유, 면역억제제 장기복용 등.

암 예방 (저위험) ・・・체중 1kg 당 0.04g

체중	하루량	참고
2. 5kg	0. 1g	300 일분
5kg	0. 2g	150 일분
10kg	0. 4g	75 일분

- 백신접종 전후에는 코디를 먹이면 좋습니다. 면역저하시의 백신은 위험성이 커지며 효과도 감소합니다.
※암 치료 중의 백신접종은 매우 위험합니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 하루 투여량을 2회 이상 나눠서 주시기 바랍니다.
- 식사 및 물에 섞어도 괜찮습니다. (※당일 안에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 마리를 기르면서 다른 아이가 먹게 되어도 괜찮습니다.
- 동봉된 스푼의 평평하게 한 스푼이 약 1g입니다.

코디M과 코디G 중에 어느 쪽이 좋은가요?

코디G가 맞지 않는 경우는 「평소 호흡이 빠른 아이」, 「단두종」, 「폐질환을 앓는 아이」입니다. 개의 림프종, 고양이의 백혈병 및 림프종, FIP 및 에이즈 등의 바이러스가 관여하고 있는 경우, 또한 개와 고양이가 공통으로 통증이 심하거나 저체온인 경우, 외용약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코디G를 추천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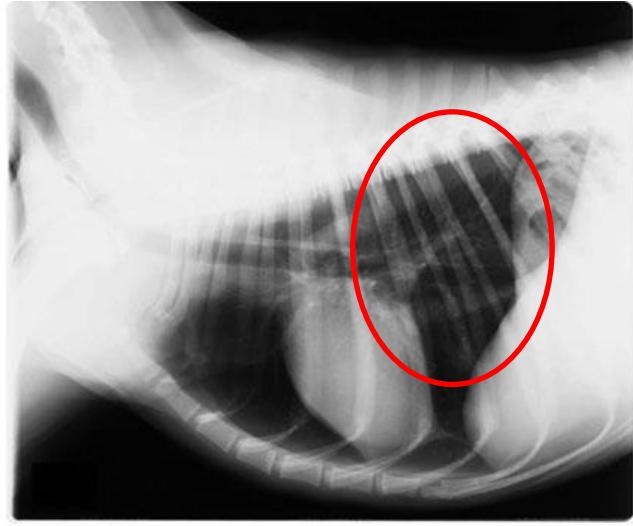
제품 문의는 (주)에스에스오티코리아
02-3454-0704



코디 사용사례



사진① 복용 전의 브트겐



사진② 복용 후 약 20 일 경과
전이된 종양의 그림자가 소실

브트겐 검사를 통해 폐 안에서 다수의 종양을 발견했다.
목 부분에서도 종양을 발견.

사진① 치료 전, 폐 전체에서 다수의 그림자(흰색)이 보였다.

사진② 저희 영양제를 약 1개월 복용한 후의 브트겐 모습. 그림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모노리스의 코멘트

동물의료의 상식에서,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종양의 치료는 항암제뿐입니다.

하지만 항암제가 효력이 있는 암은 일부이며,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화학요법은 관해(寬解) 및 연명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치유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체력·면역력 저하라는 큰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관해 유지는 어렵습니다.

또한 화학요법은 1회차가 효과를 얻기 쉬우며, 그 이후에는 약제내성의 발현 및 독성 축적에 의해 장점이 없어지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위험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효과가 없어진(약제내성이 생겨버린) 항암제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 중에는 종양의 크기를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알부민(albumin)치 및 빈혈의 정도를 체크하여, 건강상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물병원이 건강상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반려주가 치료 계획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노리스 또는 (주)에스에스오티코리아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을 가장 잘 억제하는 것은 바로 면역력입니다. 항암제가 메인이 아닙니다. 부디 치료때문에 면역력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치료가 아닌, 동물이 동물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을 길게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 모노리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디 EX (액체 타입) 사용사례

※사진을 밝게 수정했습니다.



사진① 복용 전
3 개의 유선종양



사진② 복용 실시 후 약 5주 경과
종양 1개는 결찰(結紮)에 의해 탈락

유선종양을 앓는 파피용 (15 살). 극도의 빈혈로 위험한 상황.

수술을 견뎌낼 체력이 없기 때문에 고농도 비타민 C 점적요법과 저희 영양제의 내복 및 스프레이 도포 치료를 시작.

사진① 치료 전, 대·중·소 3 개의 종양이 있으며 그 중 하나는 너무 커져서 피부가 찢어져있다.

사진② 약 5 주 후. 몸상태가 개선되었으며 가장 큰 종양은 끈을 끊어서 자연스럽게 탈락시켰다.
정보제공 : 가모동물병원

모노리스의 코멘트

개의 경우에는 고농도 비타민 C 점적요법의 효과가 제한적입니다만, 영양제와의 상승효과를 얻는다면 매우 좋은 치료가 됩니다. 이 파피용이 좋은 사례입니다.

외과적 수술도 항암제 치료도 실시하지 않았지만 위험한 상황에서 무사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동물의료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식외」, 「요행」으로 불릴지도 모릅니다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치료 실시 후 2주만에 가장 큰 종양이 30% 이상 축소, 다른 두 종양이 50% 이상이나 축소하였습니다. (면적 대비)

몸상태도 개선되었기 때문에, 끈으로 종양의 뿌리를 끊고 10 일에 걸쳐 자연스럽게 탈락시켰습니다.

유선종양은 외과수술이 최선의 치료라고 여겨지지만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동물들이 수술 후에 재발하고 있습니다. 수술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영양제 등의 보완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수술은 신체에 큰 부담을 주기에 고령, 컨디션이 나쁜 동물에게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운에 맡기는 수술보다는 먼저 체력·면역력을 높이는 노력과 안전한 치료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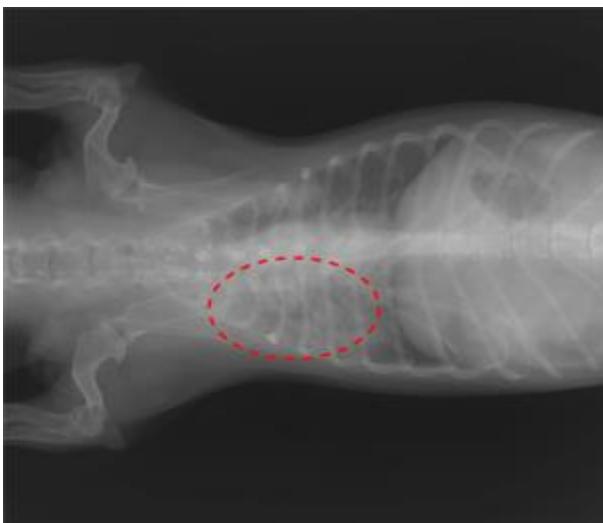
기타 코디 사용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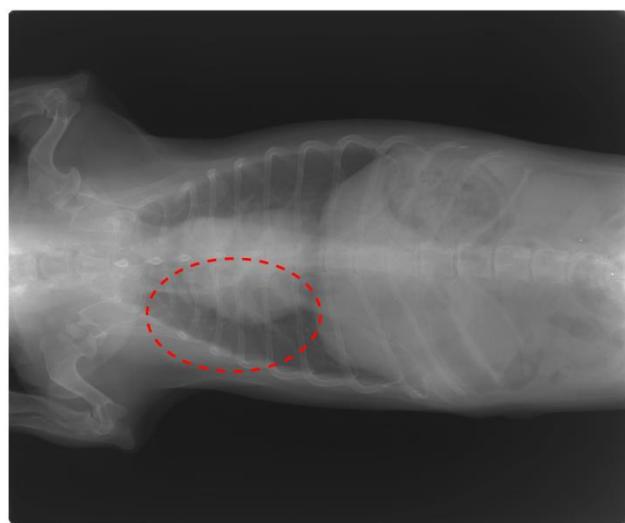
사진① 치료 전
개의 구강 내 악성흑색종(멜라노마)



사진② 코디/수상세포(樹狀細胞)요법/루페올(Lupeol)로 장기간 병을 컨트롤하고 있다 (238 일째)



사진① 치료 전
개의 갑상선암 폐전이



사진② 코디 복용 후 2 개월 경과
뢴트겐 검사에서 전이소가 발견되지 않았다



사진① 치료 전
고양이의 복강 내 악성림프종



사진② 코디 복용 후 3 개월 경과
치료 3 주만에 측진·초음파 검사에서 종양이
발견되지 않았다

수의사의 성원



암 첨단의료의 스페셜리스트

가모동물병원 원장 이토 수의사

저희 병원은 수술 및 항암제를 대신하는 「암 치료법」을 검증·
실천하고 있습니다. 선진적인 치료·종합적인 치료로서 몇 가지 치료를
동시에 실시하는 「다방향 접근」으로 좋은 성적을 얻고 있습니다.

치료법 중 하나로서 영양제는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모노리스사의
영양제는 반응이 좋아서 저희 병원의 암 치료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사용사례는 여러 번 학회 및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점점 널리 알려지겠죠. 응원하고 있습니다.



통합의료의 탐구자

아이동물병원 원장 아라이 수의사

저희 병원은 동물에게 부담이 적고 방법에 따라서는 높은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연요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치료로 인한
부작용 걱정도 거의 없기 때문에 몸이 약한 동물 및 고령인 동물들도
안심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암은 어려운 병입니다. 수술을 해도 간단하게 재발 및 전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암은 완전하게 치료할 수 없습니다.
무리한 수술 및 항암제 치료로 고통스러워하기 보다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암을 억제시키는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활약하고 있는 것이 코디입니다. 부담이 큰 치료를 바라지
않는다면 코디를 시험해 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NHK 프로페셔널」 / 「천재 ! 시무라 동물원」 등의 TV 방송 및 미디어에 다수 출연
일본 첫 애완동물용 구급차를 도입

시오타동물병원 원장 시오타 수의사

저희 병원에서는 일본 전국에서 어려운 수술 의뢰를 받습니다.
치료 시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애완동물의 통증 및 괴로움
경감과 치료 가능한 질환에 관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코디의 놀라운 점은 수술 후의 회복이 빨라지거나, 중증인 암에
관계없이 원기·식욕을 유지할 수 있는 점입니다. 코디를 만나 치료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소중한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코디를 추천합니다.

암에 지지 않는 방법

왜 암에 지지 않는 동물이 있는 것일까?

한번은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다시 건강을 되찾는 애완동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치 거짓말처럼 종양의 성장이 멈추거나, 식욕 및 원기가 생기거나, 다시 뛰어다닐 수 있게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애완동물들이 지닌 면역력입니다.

암과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면역력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이 일본의 암 치료에서는 매우 경시되고 있습니다. 상식으로 여겨지며 매뉴얼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수술 및 항암제 치료는 분명하게 말하자면 면역력을 낮추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져 있다면 재발 및 전이를 되풀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검사, 외과 수술, 항암제 치료 등의 일련의 치료가 애완동물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사실, 면역력이 좋은 아이는 암에 걸리지 않는다.

애초에 면역력이 좋은 아이는 암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애완동물들에게서 암이 적은 이유는 면역력이 착실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의 작용이 저하되어 있는 고령인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실제로 10살이 넘었을 때부터 암이 많이 발생합니다.

면역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암에 지지 않는다.

즉, 어렸을 때처럼 다시 면역력이 착실하게 작용해 준다면 암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암에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암과의 싸움에는 승패 이외에도 무승부가 있습니다. 무승부는 「암과의 공존」이며, 실질적으로는 승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완전한 승리에 구애되지 않는 것도 암에 지지 않기 위한 비결입니다. 모노리스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있는 치료는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애완동물 스스로가 나으려고 하는 힘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택에서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는 간단한 부탁입니다.

모노리스 HP : <http://korea.cordy.monolith-japan.com/>